2003년 달력 주문 받습니다
미리 주문하세요! 불교사진작가의 작품으로 만든 달력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합니다.(32종)
마하몰 02)732-1520
http://www.mahamall.co.kr

시방세계 十方世界

www.bbsradio.co.kr FM 89.9 MHz
BBS 부산불교방송

◇인도 불교 지원은 불교 중흥뿐 아니라 난민 구호의 성격도 띠고 있다. 슈레스 YBS 회장(왼쪽)이 법륜스님과 김재일 회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태제 재가연대NGO 분과장(오른쪽)으로부터 지원금을 전달받고 있다.

"인도불교 재기 가능성 있다"
"교학·수행겸비 지도자 필요"

인터뷰 김태제 NGO 지원분과장·슈레스 YBS회장

◈김태제 재가연대 NGO지원분과장

"남녀노소가 힘을 합해 스스로 불상이나 법당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인도는 불교 중흥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작년 티벳불교 지원금으로 10만 달러, 올해 인도불교 지원금으로 10만 달러를 쾌척한 김태제 재가연대 NGO지원분과장(경기불교문화원장). 김 분과장은 이번 인도 방문에서 YBS 사무실 운영과 관련 5천 달러를 기부했다. 또한 정토회가 운영하고 있는 둥게스와리 수자타 아카데미 인근 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마을 10군데에 우물 개발(한화 1000여만원 상당)도 약속했다.

쾌척한 10만 달러 중 2만 달러를 집행한 재가연대는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지원에 완급을 조절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에 있는 다른 단체들이나 불자들도 불교 홍포의 차원뿐만 아니라 고통 받는 중생 구제를 위해서도 마음을 냈으면 합니다." 김분과장의 간절한 바람이다.

◈슈레스 인도 YBS회장

"50여년 전 암베드 카르가 인도 불교 중흥에 노력했지만 아직도 진심으로 부처님 법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스님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슈레스 인도불교청년회의(YBS) 회장(33)은 인도 불교의 중흥을 위해선 승가 및 재가의 교육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인도는 출가를 원할 경우 은사 스님에게 허락을 득하고 며칠 같이 살다가 바로 나와 버리기 때문이다.

정토회나 재가연대의 지원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금치 못하는 슈레스 회장은 이를 바탕으로 석가족 전체의 입지 향상에도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상카시아 개종식 불발도 회장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6개월 전부터 직접 1600여명을 만나며 준비했습니다. 일부 정치적인 힌두교도인들이 행사를 그르치게 만들었습니다."

당분간은 대규모 개종식이 어렵기 때문에 지역별로 500여명에서 1000여명 정도의 소규모 개종식을 치를 예정인 YBS는 이를 바탕으로 석가족 뿐만 아니라 인도 불교 중흥의 선도자로서 정진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존자암 세존사리탑(도문화재 17호). 석종형 부도의 지름은 80cm, 높이는 약 130cm. 발타라존자가 세존의 사리를 모셔와 봉안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인도불교 중흥 적극 돕겠어요" 정토회 재가연대 한국불교법사회

석가족 사는 9곳 잇달아 방문…따뜻한 환영
법당·학교 건립…불상 경전 등 적극 지원
1만명 석가족 개종식은 정부 불허로 무산

인도 불교가 석가모니 후손들과 한국불자들의 원력으로 중흥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전 인도 종교 인구의 0.5%(약 5백만명)를 차지하고 있는 석가족과 석가족 후손들이 중심이 된 YBS(Youth Buddhist Society, 인도불교청년회의), 1991년부터 인도불교지원에 나선 정토회, 10만 달러 이상 기금 조성을 한 참여불교재가연대, 북한 및 아프리카 등을 지원해 온 한국불교법사회 등이 1000년 이상 멸실 돼 온 인도불교 중흥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인도불교지원팀 일행은 방문한 마을마다 주민들의 환대를 받았다. 언어와 피부색은 달라도 불자라는 공통점이 환희심을 일게했다.

◇법륜스님의 지도로, 한 인도청년이 주민들의 주시속에 삼귀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힌두교도를 중심으로 한 반대 세력의 저항과 인도 내 불교지도자 수준 미달, 승가 및 재가 지도자 교육 부재, 법당설립 및 경전보급 등 재정적인 문제 등이 인도불교 중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10월 20일 부처님이 성도 후 마야부인에게 진리를 설한 다음 지상으로 내려온 상카시아에서 10만 명이 운집, 개최 예정이던 1만명 석가족 불교 개종식이 힌두교도들과 마찰을 우려한 주 정부의 불허로 무산됐다. 이번 행사를 위해 방문한 법륜스님(한국JTS 이사장), 이기향 우리는 선우 국제협력팀장(한성대 교수), 김태제 재가연대 NGO지원분과장(경기불교문화원장), 김재일 동산반야회 회장 등은 법회가 무산됐다는 소식을 듣고 3일 동안 석가족이 운집해 있는 9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불법 홍포에 비지땀을 흘렸다. 석가족이 밀집해 있는 인도 동북부 우따 쁘라데시주 등지에서 주민들의 신심이 돈독한 메인뿌리 보가온 지역의 마하마야 아카데미, 메인뿌리 나비간지, 칸노즈 바레뿌르 등 집중적으로 한국불교계 지원예정인 곳을 취재했다.

■마하마야 아카데미

YBS가 지은 마하마야 아카데미는 3개 동 6개 교실에서 300여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2개 동은 아직 지붕도 없는 상태. 지붕 씌우기와 증축, 학교 앞 1800여 평 법당 건립 등을 위해선 4~5만 달러(한화 5~6천만원)가 필요하다.

인도불교 지원팀이 도착하자 인근 마을 주민과 학생 700~800명은 법륜스님을 중심으로 하나의 원을 만들며 방문을 축하했다. 동생을 업고 나온 아이, 자전거와 오토바이등을 몰고 온 청년, 지팡이를 짚고 있는 촌로 등은 머나먼 한국에서 온 지원팀을 환한 미소로 맞았다.

법회는 1부 문화행사와 2부 설법 순으로 이뤄졌다. 문화행사는 개종식에서 선보일 예정이었던 인도 전통춤과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연극 등으로 꾸며졌다. 하지만 행사를 준비한 학생들은 개종식 무산 소식을 듣고 울음을 그칠 줄 몰랐다는 후문이다.

법회가 끝나자 김태제 분과장은 즉석에서 학생들의 학용품 구입비로 3000루피(한화 100여만원)를 기증했다.

■메인뿌리 나비간지

나비간지는 석가족 6000여명이 운집한 마을로 마을공터에 시멘트로 만든 불상이 있다. 하지만 법회를 볼 법당이 없어 야외에서 법회를 보고 있다. 또한 법당이 건립되면 마을회관으로도 이용할 예정이다.

지원팀이 마을을 방문하자 300여명의 마을 주민들은 임시 천막을 쳐 놓은 공터로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다. 한국의 조용한 시골을 연상케 하는 마을이지만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확성기 사용을 위해 자가발전기를 돌리고 있었다. 마을 주민 또한 오랜 굶주림에 퀭한 눈과 마른 체격을 하고 있었다.

법회에서 법륜스님은 "한국에서 시멘트와 벽돌 등 법당 지을 재료만 준비해 주면 3개월 안에 젊은 당신들이 지을 수 있겠는가. 절이 완공되면 부처님도 한국에서 모셔다 줄 것이고 완공 날짜인 1월 말 경에 수계식을 봉행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법당 건립에 동참하겠다는 표시로 얼굴에 환한 미소를 머금은 채 서로 앞다투어 손을 들었다.

김태제 지원분과장은 그 자리에서 불상 봉안을 마을 주민들에게 약속했다.

■칸노즈 바레뿌르

바레뿌르 마을은 '비시 스와르'라는 마을 청년이 불교 공원 조성을 위해 고군분투하다 지난 5월 경 강도에게 총을 맞아 숨진 지역이다. 당시 같이 총격을 당했던 마을 청년은 아직도 배와 팔에 큰 흉터가 남아 있다.

3,060평의 땅에 조성된 불교 공원은 아직 비시 스와르의 따스한 손길이 남아 있지만 조각 몇 점을 제외하곤 방치된 채 있다. 재가연대에서는 이 지역에 인도불교 중흥을 위해 노력한 암베드 카르 공원과 명상 공원, 비시 스와르 추모탑 설립을 추진중에 있다.

200여명의 법회 참석자들 앞에서 김재일 회장은 "당신들은 위대하다. 왜냐하면 바로 석가모니의 후손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도 불교의 중흥을 위해 우리들은 개종식에 쓸 인도어로 된 법요집과 단주, 부처님 사진 등을 준비해 왔다. 이것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질문했다.

마을 주민들은 "부처님 사진을 집안에 모셔놓고 매일 기도를 드리고 법요집을 읽으며 부처님 법대로 살겠다"며 다짐했다.

인도 불교는 살아 꿈틀거리고 있었다. 조용히 낮은 곳에서 석가족을 중심으로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하려 가쁜 숨을 쉬고 있었다. 문제는 이들을 지원해 줄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도는 부처님의 고향이자 우리들의 고향이다.

인도=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인도돕기 지원문의 : 02-745-7799
계좌번호 : 조흥 741-04-365950(인도돕기)

◇원래 석가족 개종식때 선보이기로 했던 마하마야 아카데미 학생들의 문화공연. 개종식 무산의 아쉬움을 달래려는 듯 조촐하지만 다채롭게 펼쳐져 주민들을 기쁘게 했다.

◇11월 3일 낙성식을 갖는 제주도 존자암 대웅보전.

"여기가 한국불교 초전지"
한라산 영실 '존자암' 복원
30년 불사…대웅보전 11월3일 낙성식
주지 법정스님 "세계적 순례성지로 개발"

◇존자암에는 나라의 국운융성과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국성재(國聖齋)가 올려져왔다. 이번에 다시 복원된 국성재각.

'2천5백여년전 부처님의 6대 제자 발타라 존자는 불법을 널리 펴라는 세존의 열반게를 듣고, 권속 900나한을 데리고 지금의 제주도인 탐몰라주에 도착하여 '불래(佛來)오름'이라 불리는 한라산 영실에 '존자암'을 건립하고 불교를 전파했다.'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 같은 내용은 불교대장경(중국 26권)의 법주기(法住記)에 나오는 내용이다. 존자암에 대한 고전기록이 남아있는 고려대장경(30권)과 일본 신수대장경(49권), 동국여지승람, 남사록, 탐라지, 남명소승 등에도 '존자암은 제 6발타라존자와 9백나한의 상주도량인 신령스런 10장생의 이상향' '고 양 부 3성이 발타라 존자와 함께 살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존자암은 한국불교 초전법륜지이며, 제주도민의 시조인 고 양 부 3성의 발원지가 아닐까.

한국불교 역사의 시작이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년) 중국을 통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보다 8백년 앞선 부처님 열반 직후 해상을 통해 들어왔다는 설을 뒷받침하는 장소로 일부사학자들이 주장하는 현장, 한라산 영실 존자암이 복원됐다.

제주 서귀포시 존자암(주지 법정)은 30여년에 걸쳐 16억2천7백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3천여평 부지에 불사를 완료하고, 11월 3일 오전 10시 대웅보전(31평), 나라의 재를 모신 국성재각(8평), 요사채 법정당(22평) 낙성식을 갖는다.

특히 전국사찰에서는 처음으로 건립된 국성재각은 국성님에게 재를 올리며 나라의 국운융성과 국태민안을 기원했던 곳을 복원한 것이다.

1971년 복원이 시작된 존자암은 93년부터 94년까지 2차례에 걸쳐 제주대에 발굴용역을 의뢰, 신장상, 청동제 사리탑 뚜껑, 분청, 신오(비각), 사리함 등을 발굴, 95년 제주도 문화재위원회로부터 제주도기념물 제 43호로 지정됐다. 이후 서귀포시에 문화재정비사업을 신청, 2000년 요사채를 낙성하고, 2001년에는 존자암 수행굴을 발굴한바 있다.

법정스님은 "일본 남선사방(南禪寺坊) 앵천성산(櫻川城山)스님, 대만 공추천(孔秋泉)박사 등과 존자암 복원후 세계적 성지순례장소로 개발하는 구상도 세워놓고 있다"며 "존자암 복원을 계기로 근본불교 정신에 바탕한 수행, 세계중심 전법도량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기자